

중국의 섬유산업(1)

1990년대 초 영국의 Textile Intelligence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가 되면 동북아 3개국(한.중.일)이 세계 섬유 총 생산량의 60%를 담당할 것이며, 또한 소비에 있어서도 세계 섬유 제품 총 소비량의 40%를 위 3개국에서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당시에는 20여 년 뒤의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두고 보자는 관심사였는데, 막상 2011년도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 극동의 3개국이 아니라 중국 혼자서도 이 예측량에 접근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섬유산업의 생존 전략을 위하여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일인 것 같다.

중국 방직공업발전 보고에 따르면, 2009년도 세계 섬유 생산량은 천연섬유 2,367.5 만 톤, 합성섬유 4,625 만 톤으로 이 중 중국은 천연섬유 생산 724.9 만 톤으로 30.6%의 점유율을, 합성섬유는 2,555 만 톤 생산으로 55.2%가 되었다.

일본 화섬협회에서 발표한 2011년도 세계의 섬유 총 생산량은 7,671.2 만 톤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 사상 최고 기록이 수립되었다. 합성섬유의 생산은 4,866 만 톤으로 8.3% 증가하였고, 면화는 2,678.8 만 톤의 생산으로 7.7%의 증산을 가져왔다.

이 중에서 중국의 화학섬유 생산량은 처음으로 3천 만 톤을 초과한 3,222.9 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8%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세계 합성섬유 생산량의 비중도 2009년도의 55.2%, 2010년도의 63%에서 2011년도 68.2%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면서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2011-12년도의 세계 면화 생산량은 2,680 만 톤, 소비는 2,370 만 톤이었으나,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26.8%가 되는 720 만 톤을 생산하였고, 소비에서는 세계 소비의 39.2%가 되는 930 만 톤을 소비하였다.

호주의 AWI 상하이 사무소에 따르면, 양모 수요량은 2000년도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였으나 2008년에는 54%로 늘어났고, 급기야 "세계의 양모산업이 중국으로 이동한 느낌"이라고 했다.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온 중국의 소재 산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지속적인 양등 등에 의하여 매년 생산비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조달되는 실이나 생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정번 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소재는 한국이나 일본 등 선진 제국의 소재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그러나 물성을 안정화시킨 감성이 들어간 소재나 고급시장을 위한 소재에서는 품종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과 거의 같거나 더 비싼 실이나 생지가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석봉)